

## 國內 패션관련 教育機關의 衣服原型 教育實態 研究

- 길原型 平面構成을 中心으로 -

李明玉\* · 孫喜順

淑明女子大學校 衣類學科 碩士\*, 淑明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Fashion Education Institution's Program on Apparel Prototype in Korea

- Focused on Basic Bodice Patternmaking -

Myung Ock Lee\* and Hee Soon Sohn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domestic fashion education institution's program on apparel prototype and thereupon, address the problems and find their solutions,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basic data useful to improve the basic patterns of apparel and ultimately, help reinforce the professional and practical apparel design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85.1% of the subjects finished graduate or higher courses. Almost all of the college and junior college teachers finished graduate or higher courses, while only 31.6% of those teaching at technical institutes finished graduate or higher courses.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colleges tend to employ their faculty members based on their academic background but that technical institutes value the practical ability of their faculty more.
2.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types of basic patterns used by teachers, it was found that 72.3% of them were using two or more patterns. The basic pattern preferred most by our teachers was Japanese culture institute's type (71.3%), followed by the US FIT type (24.5%), Lim Won-Ja's type (22.3%), French ESMOD type (17.0%). 96.3% of our apparel design students were making their basic patterns as instructed by their teachers.
3. 67.0% of our students were using their conceived sizes for production of their basic patterns, 14.9% were referring to the ready-made sizes, 8.5% were relying on their teachers' individual experiences, and 9.6% were using their own cord sizes. In order to survey the difference between teachers' sizes (ready-made sizes or individual experienced ones) and business sizes used, the basic body measurements used for ready-made apparels were surveyed to be compared with the national standard body sizes set in 1997 for women aged between 18 and 24.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ady-made sizes used for apparel production prototypes than teachers' ones were nearer the national standard sizes.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it may well be necessary for teachers to be

more connected with the apparel businesses and thereby, teach their students in a more realistic way with correct information.

4. 83.0% of the subject teachers were tacking their basic patterns to be well fitting, and 76.9% of these teachers were tacking the patterns in reference with students' individual body sizes. In all, 97.4% of the subject teachers were guiding the tacking process, which suggests that the flat patternmaking is taught primarily for customized apparel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fitness of basic patterns with those of each body part, it was found that teachers were most dissatisfied with the fitness of shoulders and arm hole depth.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classify the body types or find other drawing techniques to improve the fitness of such body parts. Nevertheless, teachers were willing much (4.18) to develop their own educational basic patterns for themselves.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on educational prototypes covering diverse body shapes and those on practical implementations of those prototypes for students.

## I. 서론

근대화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한국의 패션산업은 프랑스나 이태리 등 구미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감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산업화하는 패션산업은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는 교육체제가 필수적이다.<sup>1)</sup>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지식과 함께 전문성을 갖추고 정보화 능력 등에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sup>2)</sup>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졸업생의 취업이나 산학 협동에 관심을 두고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왔으며 대학마다 주력하는 부문이 달라 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패션관련 교과과정을 보면 교육방향과 목표가 거의 같고 교과목 명칭 및 내용도 거의 유사하며,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봉제와 패턴 관련 부문 교과목을 채택한 대학은 적은 반면 디자인 및 이론과목에 많은 학점과 시간을 할애하는 대학이 많아<sup>3)</sup> 실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패션관련 교육기관간의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패션전문인의 육성<sup>4)</sup>을 위해 교육과정의 연구와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패션산업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단시간에 습득할 수 없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고 감각의 기능을 가진 패턴메이커 양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세계 의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패턴메이커의 육성을 위해 패션산업계와 학계의 산학 협동을 통한 노력과 그 방면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교과목 구성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목간에 연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특성상, 특히 패턴제작 기술과 같이 장기간의 집중교육과 연계과정을 가져야 하는 교과목 운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본원형 제작은 모든 의상 제작의 기초로, 현재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현재,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복구성 교과서에는 기본원형 제도법이 나와 있고, 의류치수규격이 설정된 상업용 패턴과는 달리 계산치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각 개인의 신체 치수를 바탕으로 그 개인에 맞는 원형을 제도하도록 되어 있다.<sup>5)</sup> 기성복이 우리 의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업계와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성복 표준치수 설정, 아이템별 의복 패턴, 연령별 체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몸에 잘 맞는 원형을 개발하려고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왔다. 바로 이 기본원형이 패션산업계의 기성복 제작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의복제작의 첫걸음인

맞음새 높은 정확한 기본원형을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의류 생산방식도 전문가에 의한 개별제품 제작이나 가내 제작의 형식에서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기성복 생산으로 변화되어, 기성복 구입과 사용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변화된 의생활에 대한 기초지식을 익히도록 교육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패션산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전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패턴부분의 교육을 교육인력 소비자 측인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여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의복원형 교육현황을 의복구성의 가장 기본인 길원형의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기관은 패션관련학과(의류학과, 의류직물학과, 의상학과, 의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등)가 있는 전국의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과 패션전문대학원이며, 그곳에서 평면구성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교·강사를 연구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의 선정은 패션관련학과가 있는 전국의 4년제 대학 70개교, 2년제 대학 43개교와 패션전문대학원 40여개 중 50%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35개, 2년제 대학 22개, 패션전문대학원 2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2부씩 154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98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결과 4년제 대학 27개교 41부, 2년제 대학 19개교 27부, 패션전문대학원 13개 19부로 각 기관에서 평면구성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교·강사 94명을 연구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의 숫자와 조사대상자의

수가 다른 것은 각 학교와 학원에서 평면구성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교·강사의 숫자가 한 명 이상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1999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예비설문지를 작성 후 개별 면담에 의한 면접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 1999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지방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의 담당 교수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고, 서울시내의 경우 일부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 회수하였다.

### 3.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의복구성 교육의 일반적 현황과 길원형 사용 현황, 제작방식 및 맞음새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측정도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연구자의 교육 경험과 의복구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총 61문항을 연구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8문항, 길원형의 제작방식에 관한 25문항, 길원형의 맞음새에 관한 21문항, 길원형의 만족도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회수된 총 94개의 설문지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전체와 집단별로 구하고, 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F-test로 하였고, 사후 검증은 Duncan-test로 하였다.

길원형의 맞음새와 만족도에 관한 측정은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의복의 평면구성 교육 실태

##### 1) 교육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평면구성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94명의 교·강사로서 교육하고 있는 기관별로 분류하면 4년제 대학이 41명, 2년제 대학이 34명, 전문학원이 19명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자의 학력과 세부전공, 교육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학력

평면구성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최종학력을 패션전문학원 수료,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대학원 박사 졸업으로 구분하여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교육자 94명 중 대학원 박사 졸업이 31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과정 재학 30명(31.9%), 석사 졸업 19명(20.2%)으로 교육자의 85.1%가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구성인원 41명중 대학원 박사 졸업과 박사과정 재학인 교육자가 각각 17명(41.5%)으로 교육자의 최종학력이 3기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의 경우 구성인원 34명 중 대학원 박사 졸업이 14명(41.2%)으로 가

장 많았고, 박사과정 중 12명(35.3%), 석사 8명(23.5%)으로 34명 전원이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학원의 경우는 구성인원 19명 중 대학 졸업자가 8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션 전문학원 수료자도 4명(21.0%)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원 석사 졸업은 5명(26.3%), 박사과정 재학이 1명(5.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교육자들의 학력이 비교적 낮았으며, 단기과정의 학원인 경우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패턴사 출신인 교육자도 포함되어 있어 학력보다는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2) 세부전공

평면구성 과목의 교육자 94명 중 세부전공을 표시한 80명은 석·박사 학위소지자로서 세부전공을 살펴보면 의복구성, 마케팅, 의상심리, 미학, 디자인, 체형학, 복식사, 의복인간공학, 의류생산설계, 피복환경, 섬유과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다음으로 세부전공을 전공 교육자(평면구성 교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복구성, 체형학, 의복인간공학, 의류생산설계 전공)와 비전공자(그 외 분야 전공)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대학원을 졸업한 80명의 교육자중 35명(43.7%)만이 동일분야 전공자로 비전공자 45명(56.3%) 보다 13%나 낮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과 전문학원의 경우는 평면구성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50% 이상이 동일분야 전공자로 나타났으나, 2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공자가 29.4%, 비전공자가 70.6%로 나타나 비전공자

<표 1> 교육자의 최종 학력분포

단위: 명(%)

최종학력	소속기관	4년제대학	2년제대학	전문학원	전 체
패션전문학원 졸업		0 ( 0.0)	0 ( 0.0)	4 ( 21.0)	4 ( 4.2)
2년제 대학 졸업		0 ( 0.0)	0 ( 0.0)	1 ( 5.3)	1 ( 1.1)
4년제 대학 졸업		1 ( 2.4)	0 ( 0.0)	8 ( 42.1)	9 ( 9.6)
대학원 석사 졸업		6 ( 14.6)	8 ( 23.5)	5 ( 26.3)	19 ( 20.2)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17 ( 41.5)	12 ( 35.3)	1 ( 5.3)	30 ( 31.9)
대학원 박사 졸업		17 ( 41.5)	14 ( 41.2)	0 ( 0.0)	31 ( 33.0)
합 계		41(100.0)	34(100.0)	19(100.0)	94(100.0)
유의수준		$\chi^2 = 60.715$ df = 10 p ≤ 0.001			

<표 2> 교육자의 세부전공 현황

단위: 명(%)

구분	소속기관	4년제대학	2년제대학	전문학원	전체
전공 분야		22(55.0)	10(29.4)	3(50.0)	35(43.7)
비전공 분야		18(45.0)	24(70.6)	3(50.0)	45(56.3)
합계		40(100.0)	34(100.0)	6(100.0)	80(100.0)

가 전공자보다 평면구성 교육을 2배 이상이나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요즘 추세인 대학 및 전문학원의 전문화, 차별화 유도로의 교육체제 보완 및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히 교과목의 특성상 보다 심도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의복구성 관련과목은 전공자나 실무경험자가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육경력

평면구성 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으로 과목 특성상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시범을 많이 보여주며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자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과목이다.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교육경력 연수를 조사한 결과 <표 3> 교육경력 평균 연수는 9년 9개월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수별로 살펴보면 1-5년 미만이 38.1%로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이 26.1%로 전체의 2/3 정도가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

로 나타났다.

의복구성 관련 교과목의 교육경력이 5년 미만인 교육자의 교육경력 연수를 세부전공과 함께 분석한 결과 교육경력 1년미만의 교육자 4명(4.3%)중 비전공자가 2명 전공자가 2명이었고, 1년이상 3년미만의 교육경력자 15명(16.0%)중 비전공자는 10명 전공자는 5명으로 교육경력 3년미만의 비전공자가 17명(18.1%)이나 되었다. 심도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평면구성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자의 교과목 운영역량이 우려된다.

2) 수강학생수

평면구성 과목은 제도를 해야하므로 학생들이 용구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과 교육자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므로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 3> 교육자의 교육경력 연수

단위: 명(%)

교육경력 연수	5년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이상	합계
빈도	35(38.1)	24(26.1)	14(15.2)	6(6.5)	8(8.7)	5(5.4)	92(100.0)

<표 4> 1회 교육시 학생수

단위: 명(%)

학생 수	소속기관	2년제대학	4년제대학	전문학원	전체
11-15명		2( 5.9)	1( 2.4)	5( 26.3)	8( 8.5)
16-20명		0( 0.0)	3( 7.3)	7( 36.8)	10( 10.6)
21-25명		1( 2.9)	8( 19.5)	2( 10.5)	11( 11.7)
26-30명		4( 11.8)	15( 36.6)	5( 26.3)	24( 25.5)
31-40명		21( 61.8)	12( 29.3)	0( 0.0)	33( 35.1)
41명 이상		6( 17.6)	2( 4.9)	0( 0.0)	8( 8.5)
합계		34(100.0)	41(100.0)	19(100.0)	94(100.0)
평균 학생 수		35	29	20	29
유의수준		$\chi^2 = 53.854$ df = 10 p ≤ 0.001			

교육자가 1회에 가르치는 학생의 숫자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전체를 살펴보면 교육자는 1회 평균 29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에 31-4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교육자 94명 중 33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26-30명이 24명(25.5%), 21-25명이 11명(11.7%)으로 나타나 교육자의 80% 이상이 1회에 21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육기관별로 분석하면 4년제 대학은 1회 평균 29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고, 1회에 26-3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교육자 41명 중 15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31-40명이 12명(29.3%), 21-25명이 8명(19.5%)으로 교육자의 90% 이상이 1회에 21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2년제 대학은 1회 평균 35명의 학생을 교육하며, 1회에 31-4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교육자 34명 중 21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41명 이상을 가르치는 교육자도 6명(17.6%)이나 되어 교육자의 79.4%가 1회에 31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전문학원은 1회 평균 20명의 학생을 교육하며, 1회에 16-2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교육자 19명 중 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11-15명, 26-30명이 각각 5명(26.3%)이며 교육자의 36.8%가 1회에 21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고, 31명 이상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에 가르치는 평균 학생 수를 기관별로 비교해보면 전문학원이 20명으로 가장 적고, 2년제 대학이 35명으로 가장 많으며, 4년제 대학은 29명으로 전체 평균과 같게 나타났다.

### 3) 작업 공간의 적합도

평면구성 수업중 학생 개인별 작업공간에 대한 적합도를 5점 척도법으로 조사하여 평점을 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를 살펴보면 학생 개인별 작업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육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가 38.3%, '충분하다'가 12.8%로 5점 척도법으로 환산하면 평점 2.6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부족하다'가 41.5%, '적당하다'가 39.0%, '충분하다'가 12.2%로 평점이 2.6으로 작업공간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의 경우 '부족하다'가 47.1%, '적당하다'가 26.5%, '매우 부족하다'가 14.7%로 평점이 2.4로 세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학원은 '적당하다'가 57.8%, '부족하다'와 '충분하다'가 각각 21.1%로 평점은 3.0으로 작업공간의 적합도가 세기관 중 가장 높고, 학생들의 개인별 작업공간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패션전문학원의 학생 개인별 작업공간에 대한 적합도 평점이 3.0이므로, <표 4>의 패션전문학원의 1회 수업 당 평균 수강생 수가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면구성 과목의 1회 교육시 학생의 적정 인원은 20명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1998년 교육기관 디자인 전문인력현황 실태조사 내용 중 의상학과 실습교육의 불만족사유의 40%가 실습장소의 협소였고, 교수 1인당 학생수의 적당도에서 77.8%가 부적당을 나타냈

<표 5> 학생 개인별 작업공간에 대한 적합도

단위: 명(%)

적합도	소속기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패션전문학원	전 체
매우 부족하다		5(14.7)	3( 7.3)	0( 0.0)	8( 8.5)
부족하다		16(47.1)	17(41.5)	4(21.1)	37(39.4)
적당하다		9(26.5)	16(39.0)	11(57.8)	36(38.3)
충분하다		3( 8.8)	5(12.2)	4(21.1)	12(12.8)
매우 충분하다		1( 2.9)	0( 0.0)	0( 0.0)	1( 1.1)
합계		34(100.0)	41(100.0)	19(100.0)	94(100.0)
적합도 평점		2.4	2.6	3.0	2.6

〈표 6〉 교과내용 구성방식

n=94		
구성방식	빈도(명)	백분율(%)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함	8	85
교육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함	39	41.5
학교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교육자가 재구성함	47	50.0

으며, 부적당시 적정 학생수에 대해 대다수의 교수(92.3%)와 학생(92.5%)이 20명대 이하라고 답한 결과<sup>9)</sup>와 일치하는 것이다.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평면구성 과목 1회 교육시 평균 학생수는 29명(표 4), 작업공간의 적합도 평균 평점이 2.6(표 5)인 현실을 볼 때 앞으로 패션교육기관에서 실기 수업할 때 한번에 수용하는 학생수를 적정 인원인 20명 이하로 맞추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4) 교과내용 구성방식

교육자가 평면구성 교육시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표 6〉과 같이 조사되었다.

교과내용을 구성할 때 학교 프로그램을 참조로 교육자가 재구성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는 경우는 41.5%이고,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경우는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의 90%이상에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교과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짐에 따라 교과운용 방식 및 교육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교과목간에 연계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2. 길원형의 교육 실태

### 1) 길원형의 종류

평면구성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길원형 종류는 교육자에 따라 다르다. 전체 94명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길원형은 총 190개로 한 종류의 원형만 사용하는 교육자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원형을 혼합 사용하는 교육자도 있었다. 한 종류의 길원형을 사용하는 교육자는 27명(28.7%), 두 종류의 길원형을 사용하는 교육자는

38명(40.4%), 세 종류이상의 길원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29명(30.9%)으로 나타나 두 종류의 길원형을 사용하는 교육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한 종류의 원형보다는 여러 종류의 원형을 혼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구성 수업시간에 교육자가 사용하는 190개 길원형의 종류는 18가지로 집약되고 종류별·교육기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원형은 일본의 문화식으로 교육자 94명 중 67명(71.3%)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의 FIT식이 23명(24.5%)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5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원형이 일본의 문화식과 미국의 FIT식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에서 개발된 원형으로는 임원자식이 21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박혜숙식은 11명(11.7%)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원형으로는 ESMOD식이 16명(17.0%), 학원개발원형으로는 국제복장학원식이 10명(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구성 수업에서 사용하는 길원형의 종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학원 포함)에서 연구개발한 원형을 사용하는 교육자가 68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원형을 사용하는 교육자도 67명(71.3%)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1968년 임원자<sup>9)</sup>의 조사내용(중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원형을 조사한 결과 일본 문화식이 98.1%이었음)과 함께 우리나라 의복원형 교육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기관별로 평면구성 수업에서 사용하는 길원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학(4년제, 2년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원형은 일본원형(73.2%, 79.4%)이며, 그 다음이 한국에서 개발한 원형, 미국, 프랑스 순서로 조사되었고, 전문학원에서는 학원개발원형을 57.9%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음이 일본, 한국에서 개발한 원형, 미국, 프랑스 순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길원형의 제작

#### (1) 신체부위별 길원형의 타입

사용하고 있는 길원형을 신체부위별 피복상태로 구

<표 7> 사용 길원형의 종류

단위: 명(%)

길원형의 종류		소속기관	4년제대학	2년제대학	전문학원	전 체
일 본	문화식		30(73.2)	27(79.4)	10(52.6)	67(71.3)
미 국	암스트롱식		2( 4.9)	0( 0.0)	0( 0.0)	2( 2.1)
	FIT식		11(32.4)	8(23.5)	4(21.1)	23(24.5)
이태리	세폴리식		4( 9.8)	2( 5.9)	1( 5.3)	7( 7.4)
프랑스	ESMOD식		9(22.0)	5(14.7)	2(10.5)	16(17.0)
	기타(프랑스)		2( 4.9)	0( 0.0)	0( 0.0)	2( 2.1)
한 국	도재은식		2( 4.9)	1( 2.9)	0( 0.0)	3( 3.2)
	박혜숙식		6(14.6)	5(14.7)	0( 0.0)	11(11.7)
	이형숙식		0( 0.0)	0( 0.0)	1( 5.3)	1( 1.1)
	임원자식		10(24.4)	11(32.4)	0( 0.0)	21(22.3)
	김필중절개식		0( 0.0)	0( 0.0)	1( 5.3)	1( 1.1)
	개인연구원형		3( 7.3)	0( 0.0)	3(10.5)	6( 6.4)
	업체실무원형		2( 4.9)	1( 2.9)	0( 0.0)	3( 3.2)
	기 타		1( 2.4)	2( 5.9)	0( 0.0)	3( 3.2)
독 일	뮐러부자식		3( 7.3)	1( 2.9)	1( 5.3)	5( 5.3)
학 원	국제복장학원식		1( 2.4)	4(11.8)	5(26.3)	10(10.6)
	시대복장학원식		1( 2.4)	0( 0.0)	4(21.1)	5( 5.3)
	SMA식		1( 2.4)	1( 2.9)	2(10.5)	4( 4.3)
합 계			88	68	34	190
조사대상자 수			41	34	19	94

\* 복수응답의 결과임.

( )안의 백분율은 조사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

<표 8> 신체부위별 사용 길원형의 타입

n=94

신체부위별 길원형 타입	빈도(명)	백분율(%)
웨이스트 타입	74	78.7
토르소 타입	17	18.1
병 용	3	3.2

분하면 몸통의 윗부분만 감싸는 웨이스트 타입과 체간부의 엉덩이둘레선까지 감싸는 토르소 타입의 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면구성 수업시간에 교육자가 사용하는 길원형을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평면구성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길원형은 웨이스트 타입이 78.7%, 토르소 타입이 18.1%로 토르소 타입보다는 웨이스트 타입을 4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교육용으로 개발된 길원형의 종류가 웨이스트 타입이 월등히 많고,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문화식과 FIT식 길원형도 웨이스트 타입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

(2) 제작 방식

학교의 의복구성 교육은 대부분은 하나의 제도방식에서 얻어진 원형을 활용하여 디자인과 복종에 따라 변형시켜 필요한 패턴을 제작 사용한다. 길원형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평면구성 과목에서는 평면제도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평면구성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길원형을 제작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생들이 사용할 길원형을 '교수가 제시하는 제도에 따라 각자가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93.6%



〈표 9〉 학생의 길원형 제작방식

n=94		
제작방식	빈도(명)	백분율(%)
교수가 제시하는 제도법에 따라 각자 제작함	88	93.6
학생 각자의 제도법에 따라 각자 제작함	2	2.1
교수가 제시하는 원형을 그대로 베껴씀	4	4.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수가 제시하는 원형을 그대로 베껴쓴다'가 4.3%, '학생 각자의 제도법에 따라 각자 제작한다'는 2.1%로 대다수가 교수가 제시하는 제도법에 의해 학생 각자가 제작한 원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길원형 제도시 사용치수

의복원형을 제작하려면 인체 각 부위의 치수가 필요하며, 필요한 인체의 부위는 원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내 패션교육기관에서 평면구성 제도시 사용하는 치수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길원형 제도시 학생 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것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성복 규격치수를 사용하는 것은 14.9%, 교수 개인 경험치수 사용은 8.5%, 학생이 사용하는 인대 치수를 사용하는 것은 9.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길원형 제도시 사용하는 치수는 학생 개인의 치수에 맞추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각 치수의 사용방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 개인치수 사용과 문제점

평면구성 과목에서 길원형을 제작할 때 교육자들의 67.0%가 사용하는 방식은 학생 개인치수를 재어 제도

〈표 10〉 길원형 제도시 사용치수

n=94		
사용치수	빈도(명)	백분율(%)
학생 개인치수를 사용함	63	67.0
기성복 규격치수를 사용함	14	14.9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함	8	8.5
학생 개인 인대 치수를 사용함	9	9.6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본인의 치수로 의복을 직접 제작, 착장하게하여 과목에 대한 흥미 유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67.0%(63명)의 교육자들이 학생 개인치수로 길원형을 제작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비조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여 문항별 순위조사를 한 결과 제도시 정확한 학생 개인치수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55.6%로 가장 높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형에 따른 원형의 보정이 25.4%, 가봉시에 기술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14.3%, 수업 시간의 부족이 4.8%로 나타나 학생의 개인치수를 재어 제도하는 방식은 학생의 다양한 체형에 적합한 정확한 치수 측정기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2) 기성복 규격치수 사용과 문제점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맞춤복보다는 소비자를 미리 예상하고 만들어진 기성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과 같이 의복 구입시 기성복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되었고, 기성복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어 가고있다. 이렇게 의복 구입이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변한 현실에서 의복구성 과목의 교육도 현실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조사된 〈표 10〉의 결과, 교육용 길원형을 제작할 때 94명의 교육자중 14명(14.9%)만이 기성복 규격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기관은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있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학교는 급변하는 정세에 빨리 적응하고 극심한 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요구에 빨리 대응하

〈표 11〉 학생 개인치수 사용시 문제점

n=94		
문 제 점	빈도(명)	백분율(%)
정확한 치수 산출의 어려움	35	55.6
학생들의 다양한 체형에 따른 원형의 보정	16	25.4
가봉시 기술과 시간의 부족	9	14.3
수업 시간의 부족	3	4.8

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길원형 제도시 교육자들이 사용하는 기성복 규격치수를 조사하여 현 기성복업계에서 사용하는 규격치수와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와 상호 비교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교육자의 기성복 규격치수 사용실태

본 조사에서 기성복 규격치수를 사용하는 14명의 교육자중 사용하고 있는 신체부위별 치수를 응답한 11명의 교육자가 쓰고 있는 기성복 규격치수는 <표 12>와 같다.

교육자가 기성복 규격치수로 사용하는 치수를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가슴둘레는 84cm에서 92cm의 범위, 허리둘레는 64cm에서 68cm, 엉덩이둘레는 90cm에서 96cm, 등길이는 38cm에서 41.5cm의 넓은 치수분포를 보이며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신체부위별 최고치와 최저치의 치수 차이는 가슴둘레 8cm, 허리둘레 4cm, 엉덩이둘레 6cm, 등길이 3.5cm로 교육자간에 사용치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사용치수 평균은 가슴둘레 86.5cm, 허리둘레 66cm, 엉덩이둘레 92.2cm, 등길이 39.1cm이고, 교육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위별 치수는 가슴둘레 86cm, 허리둘레 66cm, 엉덩이둘레 92cm, 등길이 38cm이다.

기성복 규격치수로 길원형을 제작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주관식문항으로 설문한 결과, 학생 개인에게 피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규격치수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별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의 기성복 사이즈에 맞추어 제도하거나 기본사이즈로 제도 후 그레이딩하여 학생 개인에게 피팅할 경우 가슴이 큰 이상체형의 경우 원형이 몸에 잘 맞지 않고, 키에 따른 소매와 등길이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아 개인 체형차이를 커버하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체형의 특징까지 고려한 커버율이 높은 교육용 원형 연구와 더불어 학생의 치수와 체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형의 실용화가 필요하다.

② 기성복업체의 규격치수 사용실태

교육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성복 규격치수와 국내 기성복업체에서 사용하는 치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연령 타깃이 20대인 브랜드 8개를 선정하여 패턴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패턴개발 실장들과 면담을 통하여 각 브랜드에서 기본 패턴 제작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신체치수와 제품의 호칭을 조사한 바 <표 13>과 같았다.

브랜드 각사에서 사용하는 치수를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가슴둘레의 범위는 81.3cm에서 84.5cm, 허리둘레의 범위는 64.8cm에서 67.3cm, 엉덩이둘레 90.2cm에서 92.7cm, 등길이 36.8cm에서 38.1cm로 조사되었다. 신체부위별 최고치와 최저치의 치수 차이는 가슴둘레 3.2cm, 허리둘레 2.5cm, 엉덩이둘레 2.5cm, 등길이 1.3cm로 브랜드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체부위별 사용치수 평균은 가슴둘레 83.2cm, 허리둘레 65.4cm, 엉덩이둘레 90.8cm, 등길이 37.9cm로 나타났고, 브랜드 각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위별 치수는 가슴둘레 82.8cm, 허리둘레 64.8cm, 엉덩이둘레 90.2cm, 등길이 38.1cm이다.

위와 같이 조사된 브랜드의 기본패턴 제작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신체치수 설정방법은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브랜드 런칭시 타깃연령에 맞추어 개발실무자의 경험과 경쟁회사의 치수를 참고하여 설정하며,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결과는 8개 브랜드 중 1개 브랜드만이 참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매장에서 제품 판매추이를 분석하여 기준치수

<표 12> 교육자 사용 기성복 규격치수

단위: cm

항 목	개 인 별 사 용 치 수											평 균
	86	86	86	86	90	86	86	85	92	84	84	
가슴둘레	86	86	86	86	90	86	86	85	92	84	84	86.5
허리둘레	66	64	66	66	65	67	68	66	64	67	67	66.0
엉덩이둘레	92	90	92	90	90	92	96	92	96	92	92	92.2
등길이	38	39	40	38	38	38	39	39	38	41.5	41.5	39.1

<표 13> 브랜드의 기준 신체치수와 제품의 호칭

단위: cm

항 목 업 체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영덩이 둘레	등길이	어깨끝점 사이길이	앞품	뒤품	목앞점-젖 꼭지점길이	키	상의 호칭	하의 호칭
A 사	83.8	64.8	90.2	38.1	36.8	31.8	34.3	24.1	160	55	55
B 사	81.3	64.8	90.2	38.1	38.1	31.8	33.7	24.1	162	85	64
C 사	83.8	64.8	90.2	38.1	34.3	30.5	33.0	24.1	166	55	67
D 사	83.8	66.0	91.4	36.8	35.6	31.1	33.7	24.1	167	82	64
E 사	84.5	67.3	92.7	38.1	37.5	31.8	34.3	24.1	160	7	7
F 사	82.6	64.8	90.2	38.1	34.9	29.9	32.4	24.1	160	55	64
G 사	82.6	66.0	92.7	38.1	37.5	32.4	34.9	24.1	160	55	55
H 사	83.0	65.0	91.0	38.0	38.0	32.0	35.0	24.5	163	54	65
평균값	83.2	65.4	90.8	37.9	36.6	31.4	33.9	24.2	162.3		

\* 1개사를 제외한 7개사의 치수단위가 inch였기 때문에 단위를 cm로 환산하였음

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을 제작하는 개발실에서 작업시 대부분이 치수단위로 인치를 사용하므로 cm로만 작업하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할 경우 바로 적응하기 힘이 들고, 업계에서도 한국산업규격에 맞추기 위해 작업은 인치로 하고 cm로 환산하여 형식적인 표기를 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단위 사용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13>에서 브랜드의 상·하의 제품호칭을 살펴보면 상의는 제 3차 개정 이전의 호칭법(44, 55, 66, ...)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82, 85, 88사이즈 등 가슴둘레의 신체치수를 그대로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본 기성복 호칭법(7호, 9호, ...)을 사용하는 브랜드도 있으며, 하의는 상의와 같은 호칭(44, 55, 66, ...)을 사용한 곳도 있지만 64, 65, 67사이즈 등 허리둘레의 신체치수를 그대로 호칭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았다.

브랜드 패턴개발 실장들과의 면접조사 결과, 생산된 제품에 치수표를 붙일 때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신체치수나 제품치수를 붙이기보다는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규격 형식에 따라 부착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 달라져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과는 다른, 형식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칭법도 1999년 한국산업규격과는 차이가 있고, 사용하고 있는 신체치수와 표기호칭이 부합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것은 기성복의 치수가 범국민적인 표준체위조사에

의한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제조업체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호칭방법 및 호칭종류를 표면상으로는 한국공업규격의 호칭법을 따르며 각 호수에 대한 실제 신체치수의 적용은 업체들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약간씩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기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품목별로 생산하고 있는 호수의 종류가 다르고 같은 호수일 경우에도 이에 적용되는 신체치수가 제각기 달라 업체간의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sup>10)11)12)13)</sup>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③ 교육자사용 기성복치수·기성복업체 치수·국민 표준체위조사치수의 비교

앞에서 조사된 교육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성복 규격치수(표 12)의 신체부위별 평균과 소비자연령 타깃이 20대인 기성복업체에서 사용하는 기준 신체치수(표 13)의 신체부위별 평균,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에 따른 18-24세 여자의 신체부위별 평균치수<sup>14)</sup>를 조사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육자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체부위별 평균치수와 국민표준체위조사에 따른 평균신체치수와 비교하면 가슴둘레는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보다 교육자 사용치수가 4.8cm 크고 업체 사용치수는 1.5cm 커서 업체 사용치수가 교육자 사용치수보다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에 가깝게 나타났다. 허리둘레 역시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보다 교육자 사용치수가 0.4cm 크고 업

<표 14> 교육자사용 기성복치수 · 기성복업체 치수 ·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의 신체부위별 평균치수 비교 단위: cm

평균 치수	신체 부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교육자 사용 기성복치수		86.5	66.0	92.2	39.1
기성복 업체의 기준 신체치수		83.2	65.4	90.8	37.9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		81.7	65.6	89.1	37.7

체 사용치수는 0.2cm 작아 업체 사용치수가 교육자 사용치수보다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에 가깝게 나타났지만 편차는 가슴둘레보다 작았다. 엉덩이둘레는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보다 교육자 사용치수가 3.1cm 크고 브랜드 사용치수는 1.7cm 커 브랜드 사용치수가 교육자 사용치수보다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에 가깝게 나타났고 편차는 허리둘레보다 크고 가슴둘레보다는 작았다. 등길이 역시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보다 교육자 사용치수가 1.4cm 크고 업체 사용치수는 0.2cm 커 업체 사용치수가 교육자 사용치수보다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에 가깝게 나타났다.

교육자 사용치수와 업체 사용치수의 차이가 가장 큰 신체부위는 가슴둘레로 3.3cm나 차이가 나고, 허리둘레는 0.6cm, 엉덩이둘레는 1.4cm의 차이가 나타났다. 두집단 모두 20대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가슴둘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서 사용치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의복원형 제도에 쓰이는 신체부위별 치수는 모든 부위에서 업체 사용치수가 교육자 사용치수보다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학계보다 실측치에 가까운 치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 전공과목과 업계와의 괴리가 업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므로 교육자와 업계간의 긴밀한 관계와 정보 교환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보고한 의류학 교과과정 연구 보고서 내용<sup>15)</sup> 결과와도 일치한다.

(3) 학생 개인 인대치수 사용과 문제점

앞에서 조사된 <표 10>의 결과, 교육용 길원형 제작 시 학생 개인 인대치수 사용하는 교육자는 9.6%로 나타났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인대의 형태와 치수에 대해

교육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18로 낮았다. 조사대상자 94명중 답한 85명의 교육자의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다' 1명(1.2%), '그렇다' 2명(2.4%), '보통이다' 25명(40.0%), '그렇지 않다' 40명(47.1%), '전혀 그렇지 않다' 17명(20.0%)으로 85명의 교육자 중 57명(67.1%)이 불만을 나타내어 많은 교육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대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개인의 인대치수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주관식 문항의 응답 결과, 교육용 인대의 치수가 통일되지 않고 신체치수와 인대치수의 차이가 크며 인체형태와 인대형태의 차이가 많다고 답해 교육용 인대의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용 인대의 사용호수와 치수현황을 조사하였다.

① 교육용 인대의 사용실태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인대의 상표와 호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교육용 인대의 상표로 돼지표 1가지만 쓰는 경우가 71명(89.9%)으로 가장 많고, 돼지표와 다른 상표를 혼용하는 경우는 3명(3.8%)으로, 90% 이상이 특정 상표

<표 15> 교육용 인대의 상표와 호수 n=79

구분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상표	돼지표	71	89.9
	돼지표+기타	3	3.8
	기타	5	6.3
호수	8호	47	59.5
	9호	2	2.5
	10호	1	1.3
	8호+9호	11	13.9
	8호+10호	6	7.6
	3가지 이상	12	15.2

의 교육용 인대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교육용 인대의 크기는 보통 6, 8, 10...호로 나타나고, 가장 표준이 되는 인대의 크기는 8호다. 교육용 인대로 8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59.8%(47명)로 가장 많았으며, 8호와 다른 호수의 인대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는 21.5%(1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자의 63.3%가 단일 호수(8, 9, 10)를 사용하여 교육하고 있고, 교육용 인대로는 8호(81.0%)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용 인대의 치수실태

본 조사에서 교육용 인대를 사용하는 85명의 교육자 중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신체부위별 치수를 응답한 30명의 교육자가 쓰고 있는 인대의 부위별 치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인대치수를 부위별로 살펴보면 가슴둘레의 범위는 84cm에서 89cm, 허리둘레의 범위는 60cm에서 68cm, 엉덩이둘레는 87cm에서 96cm의 넓은 치수분포를 보이며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대의 부위별 치수 차이는 가슴둘레 5cm, 허리둘레 8cm, 엉덩이둘레 9cm로 조사되어 인대간의 치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대의 부위별 평균치수는 가슴둘레 85.7cm, 허리둘레 63.9cm, 엉덩이둘레 91.0cm이다. 교육자가 사용하는 인대 중 60% 이상이 8호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수가 같은 인대는 3개(10.0%)에 불과해 같은 호수의 인대라도 부위별 치수가 다르고 인대간의 치수차이가 커 교육용 인대의 형태와 치수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③ 교육용 인대치수 ·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의 비교

위에서 조사된 교육용 인대의 부위별 평균치수와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에 따른 18-24세 여자의 신체부위별 평균치수인 가슴둘레 81.7cm, 허리둘레 65.6cm, 엉덩이둘레 89.1cm를 비교한 결과 교육용 인대의 치수가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보다 가슴둘레는 4.0cm 크고, 허리둘레는 1.7cm 작고, 엉덩이둘레는 1.9cm 크게 나타났다. 두 치수의 비교 · 분석 결과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와 교육용 인대치수의 신체부위별 치수차이가 커, 교육용 인대치수는 실제의 인체치수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교육용 인대를 사용하여서는 좋은 의복원형제작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과 인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인대를 사용해 의복을 제작할 경우 표준 신체치수의 인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정확한 인대 사용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한국산 인대는 한국인의 체형과는 상관없이 일본이나 미국의 인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거나 의류업체의 의복치수에 맞추어 주문 생산한 것으로, 인대제작을 위한 기준이 되는 호수와 인체세목의 치수가 제공되지 않고, 인대제작업체 편의에 따라 치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호환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대치수의 부적합성과 인대 형태의 비세분화가 지적<sup>16)</sup>되고 있으므로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체형에 적합한 인대제작을 위한 체형정보와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표 16> 교육용 인대의 부위별 치수와 평균

단위: cm

항 목	사 용 인 대 치 수														
	가슴둘레	85	85	86	88	88	89	87	85	85	84	85	84	86	86
허리둘레	63	63	64	62	68	68	67	62	62	62	64	64	66	62	64
엉덩이둘레	92	92	90	92	96	96	94	90	90	89	92	88	92	88	88
가슴둘레	84	86	86	84	86	85	87	86	85	88	84	88	85	84	84
허리둘레	60	62	64	62	68	62	65	66	64	64	60	62	64	67	67
엉덩이둘레	90	90	92	92	96	88	90	92	92	91	87	90	89	92	92
부위별 평균	가슴둘레: 85.7    허리둘레: 63.9    엉덩이둘레: 91.0														

4) 길원형의 맞춤새

길원형은 의복구성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로 맞춤새가 좋은 원형의 제작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육자들은 적합도가 높은 의복원형을 제작하기 위해, 길원형 제도 후 맞춤새를 확인하고 보정하는 가봉 과정에서 원형의 맞춤새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면구성 과목에서 길원형 제작시 맞춤새 정도의 확인을 위한 과정으로 제도 후에 광목가봉을 하는 교육자는 94명 중 78명(83.0%)이었고, 16명(17%)의 교육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교육자가 피트성을 보기 위한 작업으로 가봉을 한다. 길원형 제작시 광목가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실물제작시 원단가봉을 하거나, 수업시간의 부족, 기본치수를 사용하여 학생 모두가 동일한 원형으로 제작하므로 가봉이 필요치 않다고 답하였다.

(1) 길원형 가봉 방식

평면구성 과목에서의 길원형 교육은 대부분 동일한 제도방식으로 제작한 원형을 학생 개개인에게 착의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학생 각자가 원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변형,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길원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형의 맞춤새 확인을 위한 가봉이 필요하다.

길원형의 맞춤새를 높이기 위해 길원형 제작시 광목 가봉을 하는 교육자 78명(83.0%)을 대상으로 가봉 방식을 가봉의 대상과 주체로 나누어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길원형 가봉시 모든 학생의 개인신체에 맞추어 하는 경우가 76.9%(60명)로 가장 높았고, 교육용 인대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는 17.9%(14명), 표준체형인 학생을 선별하여 가봉하는 경우는 5.2%(4명)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또다시 길원형 제도시 치수 사용방식(표 10)에서 나타난 결과와 교차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봉의 대상을 모든 학생의 개인신체에 맞추는 60명의 교육자는 길원형 제도시 치수 사용방식의 결과인 학생 개인치수를 재어 사용하는 교육자 63명의 84.1%인 53명과, 기성복 규격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 14명의 42.9%인 6명,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 8명의 12.5%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교육용 인대를 사용하여 가봉하는 14명의 교육자는 길원형 제도시 치수 사용방식(표 10)에서 나타난 결과인 학생 개인치수를 재어 사용하는 교육자 63명의 1.6%인 1명과, 기성복 규격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 14명의 21.4%인 3명,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 8명의 12.5%인 1명과 학생 개인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 9명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길원형 제작시 광목가봉을 하는 교육자 78명 중 학생 개인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와 기성복 규격치수나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하는 교육자 일부를 제외한 76.9%(60명)의 교육자가 학생 개인신체에 맞추어 모두에게 가봉하는 방식으로 길원형을 제작하고 있고, 본 조사 대상인 94명의 교육자 중 63명(67.0%)이 길원형의 제도시 학생 개인치수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의 의복원형 교육은 맞춤복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원형 제작시 가봉의 주체를 조사한 결과(표 17)는 교수가 직접 가봉해 주는 경우가 53.8%(42명)로 가장 높았고, 학생들이 가봉한 후 교수가 점검하는 경우

<표 17> 길원형 가봉 방식

n=78

구 분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대 상	모든 학생의 개인신체에 맞추어 함	60	76.9
	표준체형인 학생을 선별하여 함	4	5.2
	교육용 인대를 사용함	14	17.9
주 체	교수가 직접 함	42	53.8
	학생들이 한 후 교수가 점검함	34	43.6
	시범을 보여준 후 학생들끼리 함	2	2.6

가 436%(34명), 교수 시범후 학생들끼리 가봉하는 경우는 26%(2명)로 교육자의 97.6%가 가봉 주체인 것으로 나타나 의복원형 제작시 가봉의 주체는 거의 모두가 교육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맞춤새가 좋은 원형 제작을 위해서는 가봉을 통해 원형을 보정하게 되는데, 가봉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숙련도가 높은 교육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도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2) 길원형의 부위별 맞춤새

평면구성 수업에서 교육자가 길원형 가봉시 느끼는 부위별 맞춤새의 정도를 5점 척도법으로 환산하여 부위별 맞춤새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별·길원형 부위별 맞춤새와 제도시 사용치수별 맞춤새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① 교육기관별 길원형 맞춤새

길원형의 각 부위별 맞춤새와 맞춤새의 평균을 교육기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길원형 맞춤새의 전체 평균은 3.09로 나타났고, 각 기관별 사용 길원형 맞춤새의 평균은 4년제 대학이 2.91, 2년제 대학이 2.98로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전문학원은 3.72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여 전문학원의 길원형 맞춤새는 다른 교육기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별 신체 부위별 맞춤새도 F-test

<표 18> 교육기관별 길원형의 부위별 맞춤새와 평균

신체 부위	교육기관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전문학원	전 체	F-test F-value	Duncan -test
뒷목 부위		3.18	3.21	3.76	3.30	4.26*	b b a
앞목 부위		2.50	3.09	3.53	3.11	3.08	
어깨 부위		2.44	2.47	3.35	2.62	6.42**	b b a
앞진동선의 모양		2.56	2.74	3.88	2.88	19.66***	b b a
뒤진동선의 모양		2.72	2.79	3.82	2.96	15.74***	b b a
앞품의 크기		2.82	3.18	3.76	3.13	7.27**	b b a
뒷품의 크기		2.95	3.18	3.88	3.21	8.27***	b b a
유두점의 위치		2.67	3.03	3.59	2.98	4.63*	b b a
옆선의 위치		3.13	3.41	3.67	3.36	4.18*	b b a
앞어깨, 옆 다트량		3.00	3.00	3.47	3.09	1.98	
뒤어깨 다트량		3.21	2.82	3.71	3.16	7.33**	b b a
앞허리 다트량		3.31	3.21	3.94	3.39	5.11**	b b a
뒤허리 다트량		3.26	3.15	3.81	3.32	5.02**	b b a
가슴틀레션의 수평유지		3.15	3.06	3.82	3.24	5.45**	b b a
허리틀레션의 수평유지		2.67	2.76	3.71	2.90	9.32***	b b a
가슴틀레의 여유량		2.97	3.18	3.94	3.23	8.92***	b b a
진동깊이		2.54	2.56	3.41	2.71	6.98**	b b a
허리틀레의 여유량		3.22	4.00	3.83	3.56	1.24	
뒤허리부위		2.56	2.00	3.17	2.67	3.13	
영덩이틀레션의 수평		3.44	3.00	4.67	3.78	7.50**	b b a
영덩이틀레의 여유량		3.22	3.33	4.50	3.67	4.84*	b b a
전 체 평균		2.91	2.98	3.72	3.09	21.27***	b b a

\* p ≤ 0.05, \*\* p ≤ 0.01, \*\*\* p ≤ 0.001

의 결과 신체부위 21항목 중 17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대부분 신체부위별 맞춤새도 전문학원이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원의 길원형 맞춤새가 다른 교육기관 보다 높은 이유를 찾기 위해 앞에서 조사된 교육기관별 사용 길원형의 종류(표 7)와 도입국을 살펴본 결과 전문학원에서는 학원개발원형과 개인연구원형을 다른 교육기관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18〉에서 길원형의 맞춤새 전체평균은 3.09로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맞춤새의 정도를 부위별로 살펴보면 어깨부위와 진동깊이, 뒤희리 부위의 맞춤새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뒤희리 다트량과 옆선의 위치, 엉덩이둘레선의 수평유지, 엉덩이둘레의 맞춤새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맞춤새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어깨부위의 맞춤새가 좋은 원형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깨길이 및 어깨경사도 뿐 아니라 어깨가 앞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알아야 한다.<sup>18)</sup> 그러나, 조사대상 교육자가 길원형 제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춘식이나 병용식의 측정항목에는 어깨의 모양이나 길이를 알려 주는 항목이 없고, 사람에 따라 어깨경사도의 차이가 심해 어깨부위의 맞춤새 평균이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깨경사도의 변화에 따라 제도시 위치 변동이 생기는 진동깊이의 맞춤새 평균도 낮게 나타났다. 의복원형의 맞춤새를 높이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체형을 분류하여 체형의 특징을 반영하여 원형을 보정하거나, 체형별로 제도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데<sup>19)20)</sup> 본 조사에서는 94명의 교육자의 20.2%인 19명만이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제도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형별로 제도방법을 다르게 사용하는 교육자의 길원형 맞춤새의 평균은 3.39로 체형에 따라 제도법을 달리하지 않는 교육자의 사용 길원형 맞춤새의 평균 3.01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체형의 변화에 따라 제도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되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형별 교육용원형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길원형 맞춤새의 평균을 신체부위별 사용 길원형의 타입(표 8)에 따라 분류한 결과 웨이스트 타입의 맞춤새 전체 평균은 3.00이었고, 토르소 타입의 맞춤새 전체 평균은 3.37로 토르소 타

입 길원형의 맞춤새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에서 맞춤새의 평균이 2.67로 낮게 나타난 뒤희리 부위는 토르소 타입 길원형에 관한 항목 중 하나로 토르소 타입의 맞춤새 전체 평균은 3.37와 비교하여 맞춤새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토르소원형이 웨이스트원형을 발전시켜 허리에 슬기를 넣지 않고 엉덩이 둘레선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뒤희리의 곡면 형상 특징이 원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아직까지 한국인 체형의 특징을 반영 개발한 토르소원형<sup>21)22)</sup>이 실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교육자가 사용하는 길원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길원형이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잘 피트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 3.15의 만족도를 보여 사용 길원형 맞춤새의 평균 3.09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고, '사용하는 길원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는 3.45로 나타나, 사용 길원형 맞춤새의 전체 평균 3.09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㉔ 길원형 제도시 사용치수별 맞춤새와 만족도

앞에서 조사한 국내 패션교육기관에서 평면구성 제도시 사용하는 치수의 종류(표 10)에 따른 교육자의 사용 길원형의 맞춤새 평균과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길원형의 맞춤새 평균은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하여 원형을 제작하는 경우가 3.73으로 가장 높고, 학생 개인 인대치수를 사용하여 원형을 제작하는 경우는 2.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한 길원형의 맞춤새 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교수 경험치수는 교육자의 연구와 피팅을 통해 수정 보완된 자료로 앞에서 조사된 〈표 14〉의 내용과 같이 살펴보면, 교육자 경험치수가 다른 사용치수에 비해 국민표준체위조사치수에 가까우므로 교육자 경험치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길원형의 맞춤새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학생 개인 인대치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길원형의 맞춤새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조사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인대의 형태와 치수에 대해 교육자가 느끼는 만족도의 결과 평균 2.18로 낮았고 교육용 인대는 치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신체치수와의 차이가 커 인체형태와



<표 19> 길원형 제도시 사용치수별 맞춤새

문항	사용 치수	학생 개인치수	기성복 규격치수	교수개인 경험치수	학생개인 인대치수	평균	F-test F-value	Duncan-test
사용 길원형의 맞춤새 평균		3.05	3.22	3.73	2.81	3.09	3.69**	b b a c
사용 길원형의 20대 초반 학생들에게의 맞춤새		3.14	3.18	3.25	2.77	3.15	1.43	
사용 길원형의 전반적인 만족도		3.43	3.36	4.00	3.11	3.45	1.42	
사용 길원형 활용의 편리성		3.60	3.50	4.00	3.44	3.59	0.61	
체형 커버율이 높은 새로운 원형의 개발시 사용 의지		4.07	4.00	3.25	4.33	4.04	4.23**	b b c a
사용 길원형의 연구 개발 의지		4.18	4.09	4.25	4.33	4.16	1.68	

\* p ≤ 0.05, \*\* p ≤ 0.01, \*\*\* p ≤ 0.001

차이가 많아 기존의 교육용 인대를 사용하여서는 좋은 의복원형제작은 어렵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교육자가 사용하는 길원형의 맞춤새 정도와 교육자본인이 사용하는 길원형의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교수 개인 경험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학생 개인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 길원형의 부위별 맞춤새 전체 평균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자들의 원형에 대한 관심은 '향후 체형 커버율 높은 원형 개발시 사용의향이 있다'가 4.04, '사용하는 길원형의 계속적인 연구 발전의 필요성이 있다'가 4.16으로 나타나 향후 의복 원형에 대한 연구 개발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체형의 특징까지 고려한 커버율 높은 교육용원형 연구와 더불어 학생의 치수와 체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형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교육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패션분야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의복원형 교육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패션교육기관에서의 의복원형 교육이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성 극복과, 의복구성의 가장 기본인 길원형의 맞춤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85.1%가 대학원 석사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자가 대학원 졸업자인 반면 전문학원의 경우 31.6%만이 대학원 졸업자로 대학은 교육자의 학위를 중요시 여기고 전문학원의 경우 학위보다 실무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원에서 세부전공이 평면구성 교과목과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복구성과 체형학, 의복인간공학, 의류생산설계를 전공한 교육자는 43.7%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비전공 교육자가 70.6%나 되어 최근 대학 및 전문학원 교육체제의 전문화, 차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 3년미만의 비전공자 교육자도 18.1%나 되어 심도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평면구성 교과목의 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평면구성 과목의 1회 평균 학생 수는 29명으로 나타났고, 학생 개인별 작업공간은 47.9%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수업환경에 대해 약간 부족함(2.59)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실기수업 1회에 수용하는 학생 수는 적정 인원인 20명 선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과내용 구성방식에 있어 교육자의 90% 이상이 교육자의 의도에 따라 교과내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간에 연계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행과 정착에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3. 사용하는 길원형 종류를 조사한 결과 교육자의 72.3%가 두 종류 이상의 원형을 혼합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원형은 일본의 문화식으로 교육자의 71.3%가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FIT식(24.5%), 임원자식(22.3%), 프랑스의 ESMOD식(17.0%)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원형은 웨이스트 타입(78.7%)을 토로스 타입(18.1%)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교육용 길원형의 종류가 웨이스트 타입이 많고, 국내에 처음 도입된 문화식과 FIT식 원형도 웨이스트 타입인 때문이다.

학생들의 길원형 제작방식은 93.6%가 교수가 제시하는 제도법에 따라 각자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길원형 제작시 치수사용 방식은 학생 개인치수 사용이 67.0%, 기성복 규격치수 사용 14.9%, 교수 개인 경험치수 사용 8.5%, 학생 개인 인대치수 사용 9.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학생 개인치수를 재어 제도하는 방식은 정확한 치수 산출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계측 숙련도가 미흡한 학생이 주체(96.8%)가 되는 인체계측상의 문제에 기인함으로 학생들에게 계측방법을 숙련시키거나 숙련도가 높은 교육자가 직접 계측을 해주어 계측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교육자 사용(기성복 규격치수·개인 경험치수)치수와 현업계 사용치수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기성복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기본 신체치수를 조사, 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에 따른 18-24세 여자 신체치수와 비교·분석한 결과 의복원형 제도에 쓰이는 모든 신체부위별 치수는 기성복 브랜드 사용치수가 교육자 사용치수보다 국민표준체위조사 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학계보다 실측치에 가까운 치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교육자는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정보 교환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6.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인대의 형태와 치수의 만족도(2.18)는 낮았고, 교육용 인대의 호수와 치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인대의 90% 이상이 특정 상표를, 81.0%가 8호를 사용하였고, 같은 호수의 인대라도 부위별 치수가 다르고 실제 인체치수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인대치수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7. 맞춤새 높은 길원형 제작을 위해 제도 후 광목 가봉을 하는 교육자(83.0%) 중에서 76.9%가 학생 개인 신체에 맞추어 가봉을 하며 가봉의 주체는 97.4%가 교육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의 의복구성 교육은 맞춤복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사용 길원형 맞춤새는 전체(3.09)와 비교하면 전문학원(3.72)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길원형의 각 부위별 맞춤새의 비교 결과 어깨부위와 진동깊이의 맞춤새가 낮게 나타나 어깨부위의 맞춤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후 체형별 보정법을 사용하거나 체형에 따라 제도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어깨 형태와 진동깊이의 상관 관계 연구와 더불어 맞춤새 향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8. 길원형의 사용치수별 맞춤새 평균은 교수 개인 경험치수(3.73) 사용이 제일 높고, 학생 개인 인대치수(2.81) 사용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교육자들의 사용 길원형에 대한 연구개발의 의지(4.18)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형의 특징까지 고려한 커버울 높은 교육용원형 연구와 더불어 학생의 치수와 체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형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조사대상기관의 수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기관별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문학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패션전문학원은 많지 않아 서울시에만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에 확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길원형의 맞춤새의 평가시 평가자 각 개인의 주관적 영향이 모두 통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연구결과를 객관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3. 본 연구는 길원형의 평면구성 교육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의복 원형 교육에서 길원형만이 아닌 다양한 의복원형 연구와 더불어 입체구성 교육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의복구성의 가장 기본인 길원형 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학생의 치수와 체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형의 특징까지 고려한 커버울 높은 원형 연구와 실용화가 필요하다.

5.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분야별로 필요한 의복원형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패션산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패턴부분의 교육을 교육인력 소비자측인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여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연구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주상호, 한국패션산업의 오늘과 내일, 한국패션협회, '97 섬유패션연감, 한국섬유신문사, 1996, pp. 1236-1237.
- 2) 임숙자 외 12인, 의류학 교과과정 연구 보고서, 한국이류학회, 1999, p. 2.
- 3) 한국패션협회, 한국패션교육기관 실태조사, '97 섬유패션연감, 한국섬유신문사, 1996, pp. 1383-1388.
- 4) 조규화, 21세기 한국패션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 교육의 방향, 21세기 패션교육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6. 2.
- 5) 김성경, 부인복 기본원형 제도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6) 천중숙, 패턴설계의 기초, 수학사, 1998, p. 12.
- 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토론회, 1999, p. 13.
- 8) 교육기관 디자인 전문인력현황 실태조사, 산업자원부, 1998, p. 57, pp. 176-181.
- 9) 임원자,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체형과 Basic Pattern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6권, 1968.
- 10) 손희순,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1) 이혜영, 기성복제작을 위한 표준치수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2) 이병홍, 여성 상의 SIZE SPEC 일원화와 체형별 원형제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13) 정주희, 숙녀복 치수체계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1997, pp. 69-83, 126-127.
- 15) 의류학 교과과정 연구 보고서, 앞의책, pp. 96-97.
- 16) 권숙희, 여대생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및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2-32.
- 17) 부위별 맞춤새 항목 21개중에서 마지막 4개의 항목은 토르소 타입 길원형 사용자를 위한 것임.
- 18) 김성경, 앞의 책, pp. 63-73.
- 19) 박혜숙 외3인, 앞의 책, pp. 138-177.
- 20) 나가자와 스스므 저, 나미향 외 1인 역, 의복과 체형, 예학사, 1999, pp. 149-201.
- 21) 손희정, 앞의 책, pp. 117-127.
- 22) 위수영, 토르소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5-8.